

- 모란봉악단, 남북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다!

SBS PD 오기현

1. 남북한 예술교류의 역사

1) 1999년 이전

공연예술분야에서 최초의 남북교류는 1985년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이산가족 고향방문단행사와 함께 진행된 '남북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었다. 남북한 정부주도로 진행된 이 행사는 남북 각각 151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상대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의 국립중앙극장과 평양의 평양대극장에서 각각 50명이 전통민속예술중심의 공연을 하였다.

북한측은 남한공연에 대해 봉건성, 양풍화와 퇴폐성, 식민지시대 예술의 극복부족 등을 지적하며 비난하였고, 남한측은 북한공연에 대해 전통훼손, 획일성, 전체주의와 예술의 왜곡 등을 지적하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이영미, 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선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이 상호방문하여 대규모 공연을 벌였으며, 분단 40년간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0년 10월 18일부터 23일 까지 평양에서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민간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행사였으며 준비위원장은 독일에 거주한 윤이상이 맡았다. 이 행사에는 남북한과 재외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남한에서는 황병기를 단장으로 서울전통음악연주단 17명(연주단 14명, 취재단 3명)이 참가하였다. 그해 12월 9일과 10일에는 서울에서 국립음악원 정악연주단 등과 북한에서 온 평양민족음악단 33명이 참가한 <'90 송년전통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범민족통일음악회의 답방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5년 전과는 다르게 남북한 양측은 상대방의 공연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보냈다. 1990년에 개최된 두 차례 공연은 체제대결적 태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적 태도로 치러낸 최초의 교류공연이었다. 그러나 이 공연 역시 일회적이었고, 상호 간의 동질성 확보는 한정적일 수 에 없었다.

1998년 5월에는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이 있었으며, 11월에는 역시 평양에서 <제1회 윤이상음악회>가 개최되어 민간차원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2) SBS 평화친선음악회

방송사 최초의 공연은 1999년 12월 5일 SBS의 '평화친선음악회'와 12월 22일 MBC의 '민족통일음악회'였다. 평화친선음악회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동생인 대중 가수 로저 클린턴이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할 때 SBS가 합동공연 형태로 참여했다. 외형상은 합동공연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가수 공연, 남한 가수 공연, 북한에 술단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남한에서는 패티김, 최진희, 태진아, 설운도, 핑클, 잭스키스가 참가했고 사회는 김승연이 맡았다. 북한 측에서는 민속예술단이 부채춤, 장고춤 등을 선보였으며, 만수대 예술단 백승란이 사회를 맡았다. SBS는 조선중앙방송의 협조를 얻어 12월 10일 프로그램을 녹화해 방영했다.

3) 제 1회 MBC 민족통일음악회

MBC는 1999년 12월 22일 봉화예술극장에서 '민족통일음악회'를 개최했다. 남한의 차인태 아나운서와 역시 만수대예술단 백승란씨가 함께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남한 측에서 신형원 안치환, 김종환, 현철, 민요가수 오정혜가 출연하였고, 북한 측에서 인민배우 전해영, 리경숙 등이 출연해 군밤타령, 양산도를 불렀으며 발레극 돈키호테의 '집시춤'도 공연했다.

앞서 열린 SBS의 평화친선음악회는 미국과 공동 주최한 행사였지만, 민족통일음악회는 MBC 단독으로 추진한 방송사 최초의 평양공연이었다. SBS가 남한 대중문화의 흐름을 통해 남북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의도였다면, MBC의 공연은 대중공연이면서도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랐다. 두 공연 모두 남한에는 방송되었으나 북한에는 봉화예술극장에 참석한 관객 2,000 명에게만 공개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들 공연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된 방송공연교류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 MBC 이미지, 윤도현 특별공연

MBC는 2002년 9월 27일에 이미지 특별공연과 9월 28일 윤도현 특별공연을 동평양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미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동백아가씨, 흑산도가가씨, 목포의 눈물 등을 열창해 동평양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윤도현, 최진희, 테너 임웅균 등도 평양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특히 남한

의 미남 청년 윤도현의 자유분방한 이미지와 목이 메어 노래를 잠시 중단했던 사건은 북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한때 북한에서 '윤도현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오! 통일 코리아'는 북한 전역에 최초로 TV생중계되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5)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2003년 8월 11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이 평양 모란봉공원 평화정 앞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실향민출신 가수 송해와 조선중앙방송 방송원(아나운서) 전성희의 사회로 진행된 노래자랑에는 12세의 어린아이부터 77세의 할아버지까지 20여명의 평양 시민들이 참가하여 민요, 동요, 가곡, 생활가요를 불렀으며, 남한에서 주현미, 송대관 등이 찬조 출연하였다. KBS측에서 28명의 제작진이 방북하여 조선중앙방송제작진과 공동제작하였으며 남북공동사회로 진행된 실질적인 최초의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6) SBS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

SBS는 2003년 10월 8일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를 개최했다. 조영남, 설운도, 주현미, 베이비복스, 신화, 바리톤 김동규와 1,100명의 참관단은 최초로 휴전선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였고, 류경체육관에 남한식 공연무대를 직접 설치하였다. 조영남은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를 해 북한 관계자들을, 북한 가요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러 남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베이비복스의 무대의상 베네통으로 인해 공연전 실랑이가 일기도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서 공연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격히 적어졌음은 가수 설운도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7) SBS 조용필평양공연

SBS는 2005년 8월 23일 '국민가수' 조용필이 류경체육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탈북자 대거 남한 입국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영향으로 일곱 번의 연기 끝에 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용필은 공연에 일체의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음악만을 통한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북한에 가면 북한 가요를 불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한 가수에게서 남한 가요를 듣고 싶어 할 것이

라는 북한주민들의 내재된 요구에 호응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순수하게 음악을 통한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특히 7천명의 관객 중 2천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측이 과거의 방어적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남한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남한의 공연방식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모란봉악단의 등장배경

1) 북한 특유의 음악정치

'오늘 몽땅 접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자!'

2012년 7월 11일, 평양의 장마당 상인들은 모란봉악단공연의 첫 TV방영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서 귀가를 했다. 공연장 맨 앞자리는 젊은이들이 사비(웃돈) 5유로를 주고 서라도 서로 앉으려고 다투었다. 당시 모란봉악단의 악장(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선우 향희'는 북한의 아이돌이었다. 평양음악대학 출신인 그녀의 인기는 우리 아이돌가수의 인기를 능가했다. 모란봉악단의 가수 류진아, 라유미, 김유경은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보통 북한에서는 경력이 20년 이상 된 원로가수들이 공훈배우 칭호를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당국의 모란봉악단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의 의상,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 모는 것이 북한젊은이들의 관심사다. 평양과 외국을 오가는 JS항공기의 객실, 양각도호텔의 로비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여지없이 모란봉악단의 '실황록화' 영상이 반복해서 상영된다. 어깨가 드러난 튜브탑 원피스와 숏커트 머리 등 도발적 외모, 바다르체브스카의 '소녀의 기도', 이브 몽땅의 '고엽' 등 서구 대중음악연주, 거대한 LED 백스크린의 몽환적 영상 등 이전의 시각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방영되는 것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짧은 기간에 새 세기 조선의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멋쟁이 악단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면서, "오늘 문학예술부문은 물론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할 시대의 본보기로 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런 모란봉악단에 대한 선전은 북한식 음악정치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 음악은 '정치사상적 무기로서 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음악정치란 곧 "통치자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하는 북한 특유의 통치방식"으로 정의된다. 북한에서는 "음악은 때로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 톤의 식량을 대신했다"라며 음악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란봉악단의 공연 방식과 내용은 곧 통치자의 정치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봐야한다.

2)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 부각

가수 7명과 11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모란봉악단은 2012년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조직되었다. 2012년 7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 하에 시범공연을 벌인 이후 작년 12월 28일까지 5년 간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20년 만에 지도자가 바뀌면서 체제결속과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음악과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걸 그룹을 등장시켰다고 분석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회가 넘는 모란봉악단 공연 대부분을 관람했다. 최고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북한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특정악단의 공연을 상시 관람하며 지도한다는 것은 곧 그 악단의 공연내용이 단순한 문화정책의 경계를 넘어 새 지도자가 의도하는 포괄적인 정책의 방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란봉악단의 등장 배경은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은 단 기간에 확실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인민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문화공연의 확대'에 주력했다. 평양에 새롭게 건설된 대규모 유희장과 살림집 건설은 전자의 경우이고 모란봉공연단의 결성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전체에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3) 한류의 확산에 대한 대응

한류를 비롯한 대외문화의 확산도 모란봉악단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무역확대로 국경지역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영화, 드라마, 공연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아울러 장마당의 활성화로 거래규모도 많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전문대여상이 등장하는 등 공급자 - 중간대여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민요풍 노래를 주로하는 <왕재산경음악단>과 결성한지 20년이 지난 <보천보전자악단>으로는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감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역사와 교훈을 담은 혁명가요로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을 계기로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을 새로 결성했다. 두 악단 모두 클래식 악기가 중심이며 단원들이 세련된 미모와 의상, 경쾌한 음악은 이전의 악단과는 차별화된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도 2010년부터 1년간 은하수관현악단에서

활동했다. <삼지연악단>과 <은하수악단>으로 새로운 공연스타일의 수용이 확인되자 2012년 김정은과 리설주가 주도하여 <모란봉악단>을 결성했다. 김정은이 나서서 "젊은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모란봉악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연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공연형식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 중 가장 인상적인 공연은 2013년 1월 1일 열린 '신년경축음악회'공연이다.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온 남한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남북대중문화교류의 실증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진행되어 온 남북한의 대중문화교류 특히 남한 방송사들의 방북대중공연의 영향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4) 부침하는 "시대의 본보기"

2012년 7월 출범한 모란봉악단은 2013년 10월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하지 않다가 뒤이듬해인 2014년 3월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재개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신작음악회> 공연을 끝으로 활동이 없다가 2015년 4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 나섰다. 그리고 2015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공연>, 12월에 무산된 베이징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6년 2월 13일에 <광명성-4호 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 등을 환영하는 연회>, 2월 18일 <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공연>, 5월 <제7차 노동당대회 축하 청봉악단 합동공연>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8일 <제1차 전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벌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1년 2개월 만에 참석했다.

2013년 10월 이후의 활동정지에는 '장성택 숙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북한당국이 <Music Channel>이라는 대외홍보용 페이스북에서 "선우향희, 류진아 등 일부 단원이 장성택 계파에 강하게 연루돼 있어서 공연에 나서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북한 지배층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모란봉악단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에는 이전에 있던 <왕재산악단>을 주축으로 금관악기, 타악기 위주의 <청봉악단>이라는 새로운 악단이 등장했다. 북한매체들이 <청봉악단>에 대해서도 '사상의 척후대,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 기수'로 칭송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모란봉악단 단원들에게 장교계급의 군사칭호를, 가수인 김유경에게는 공훈배우 칭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모란봉악단의 위상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남북대중음악교류의 효과

1) 체육관 공연의 등장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체육관 공연'을 하나의 공연 문화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모란봉 악단뿐 아니라 은하수악단 공연(2012년 6월 6일 <소년단창립66돐 경축 은하수음악회>)에서 종종 '체육관 공연'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모란봉 악단의 등장으로 비로소 체육관이 체계화된 공연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체육관 공연은 '공연 규모의 대형화', '무대의 입체화', '출연자와 관객의 일체화'에 있어서 일반 극장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다.

물론 북한의 체육관 공연은 자본주의 상업 문화의 산물로 태어난 남한식 체육관 공연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규모 군중 동원의 효율성, 다양한 무대연출로 선전 활동이 용이한 점, 배우와 주민의 일체화로 쉽게 감동을 준다는 점이 체육관 공연을 선호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북한최초의 체육관공연은 전술한 2003년 <SBS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였다. 당초 북한당국은 체육관공연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체육은 체육관에서, 공연은 극장에서'라는 것이 북한의 표면적 논리였다. 그러나 SBS의 공연을 통해서 체육관공연의 위력을 확인한 뒤 자신들도 체육관 공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역동적 무대연출

모란봉 악단의 <신년 경축 공연> 중 <경음악과 노래련곡 - 세계 명곡 묶음>에서 합창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남한 방송 KBS의 <가요무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어깨를 드러낸 반짝이 튜브톱 원피스에 네 명의 가수가 가벼운 어깨짓과 손짓으로 박자를 맞추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무척 익숙하다. 하지만 한정된 레퍼토리, 절제된 의상과 동작에 익숙한 북한 관객에게는 오히려 낯선 장면일 것이다.

모란봉 악단의 연출은 모란봉 악단 출범 전 가장 대표적인 악단이었던 <은하수악단>과 비교해도 공연방식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2012년 3월 8일 <3.8 국제부녀절 은하수음악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은하수악단의 기념비적 공연이다. <국제부녀절 은하수음악회>는 규모가 작은 극장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1대나 되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 촬영에 완벽을 기했다. 지미집 카메라의 사용과 객석 안으로 'RUN AWAY' 무대를 연결한 것도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은하수음악회>는 레퍼토리 선정에서 기존 북한의 민요나 송가류(流)를 벗어나지 않는다. 음악이 고전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의상이나 분장 혹은 헤어스타일도 기존의 틀을 고수한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은 이런 고정관념과 틀을 거의 바꾸어 버렸다. 공연장선정 및 무대장치, 카메라워크, 오디오, 조명, 연출, 의상 및 코디, 선곡 등 모든 면에서 “참신하고 약동적이며 순수한 자기의 얼굴과 개성을 살린 새롭고 특색 있는 음악세계”(로동신문, 2012.7.29.)를 보여준다. 2003년 SBS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 당시 보여준 북한관객의 반응을 볼 때, 모란봉악단 공연의 연출방식은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행을 따른 의상과 분장

모란봉 악단의 공연 내용 중 의상과 분장은 남한공연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의상과 분장(화장)은 대체로 유행에 민감하여 공연과 상관없이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란봉 악단 출연자들의 변화된 의상과 분장 그리고 자유분방한 무대 매너는 남한 공연단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북 공연 중 남한 가수 혹은 출연자들의 의상이 문제가 된 사례는 1999년 SBS의 <평화 친선 음악회>와 2003년 SBS의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화 친선 음악회>에 참가한 그룹 '핑크'은 북한 측의 요구로 색상이 들어가지 않은 검정색 원피스 혹은 투피스를 착용했으며, 'TO MY PRINCE'라는 노래를 부르는 도중 울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제자리에 서서 팔꿈치 아래만 움직이는, 마치 로봇 같은 안무를 선보였다.

<류경정주영체육관 공연>에서도 역시 여성 그룹 <베이비박스>의 의상이 북한 측의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당시 베이비박스는 붉은색 실크 상의를 걸쳤는데 멤버 중 한 사람의 배꼽이 노출되었다. 북한 측은 리허설 과정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의상을 바꾸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다른 의상을 준비하지 않은 베이비박스가 난색을 표하자 북한 측은 공연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고, 결국 붉은 천을 한 장 덧대어 북한 측의 동의를 받아냈다. 여성들의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은 같은 공연에서 가수 설운도의 백댄서들도 착용하였다. 무대의상이긴 하지만 매우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 백댄서들이 현란한 안무와 함께 무대에 등장했으며, 북한의 공연관계자들뿐 아니라 관객들

도 무척 긴장했다. 남한 공연단의 방북 공연에서 북한 측은 출연 여성들의 노출에 대해 대체로 지나칠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보면 북한 측의 태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시범공연>에서 잠시 튜브톱 롱 드레스를 입었던 가수들은 <신년 경축 공연>에서 시종일관 어깨 부분이 노출된 튜브톱 의상을 입었다. 11명의 연주자들은 치마 길이가 매우 짧은, 이른바 '하의실종' 의상을 착용했다.

모란봉 악단의 의상이 곧바로 남한 공연단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출연 여성들의 노출 정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 즉 방북 공연에서 선보인 남한 공연단의 의상이 북한 당국과 관객들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 역할을 했으며, 다른 외부유입 문화와 복합적으로 북한 출연자들의 의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된다.

4) 다양한 특수효과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서는 특수효과인 종이축포, 불기둥, 불꽃(마인)이 자주 등장한다. 불꽃은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룹 '신화'의 <Perfect Man> 공연에서 갑자기 불꽃이 분출하였으며 관객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한 일이 있다.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에서는 공연 직전 북한 측 관계자들이 불꽃의 재료인 화약을 모두 수거해 갔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좁은 실내에 화약을 터뜨리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연을 보기 위해 참석한 북한 고위층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들이 낯선 물질에 대해 과잉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종이축포는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이 끝날 무렵 처음 소개되었다. 하늘에서 하얀 꽃가루가 떨어지자 평양 관객들이 신기한 듯 떨어지는 종이를 주워 살펴보기도 했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서는 종곡(마지막 레퍼토리)인 <설눈아 내려라> 노래가 끝날 때쯤 불꽃이 피어오르고 종이축포가 발사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공연에 '위험한 재료'를 사용한 불꽃이 사용된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 종이축포도 공연의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불꽃과 종이축포는 이미 북한 공연 문화의 주요한 효과 장비로 자리를 잡았다.

5) 현대적 오디오 장비와 카메라 장비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에서 그룹 신화는 헤드셋(Headset) 마이크를 북한에서 처음 사용했다. 무대에 스탠드 마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헤드셋을 착용

용한 이유는 단순히 시각적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공연 당시, AR(audio recorded tape)을 사용했다. 즉, 이미 노래가 다 녹음된 상태에서 립싱크를 하였으므로 스탠드 마이크조차도 공연 소품에 불과했다. 헤드셋 마이크는 실제로 안무가 많은 댄스 가수나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가수들처럼 핸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가수들에게는 필수품이다.

모란봉 악단의 <신년 경축 공연>에서 연주자들도 무선 헤드셋을 사용한다. 연주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없으므로 여기서도 단순히 공연 소품에 불과하다. 오히려 모란봉 악단보다 앞서 활동한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들은 헤드셋 마이크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 중 가장 눈에 띄는 장비는 지미집(Jimmy Jib) 카메라이다. 지미집은 2003년 KBS의 <평양 노래자랑>과 2003년 SBS의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미집 카메라는 영상의 생동감을 높여주고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 공연 제작과 스포츠 중계에 많이 사용된다. 남한 공연단의 방북 공연 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미집을 요구하여 SBS 측에서 한 대를 전달하였다. 이후 북한의 방송에서 지미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그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6) 관객들의 적극적 관람태도

관객들이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2003년 KBS <평양노래자랑>에 참석한 남한 측 관객들이 처음 선보였다. 가수들의 노래에 따라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흔드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행해지는 퍼포먼스이다. 박수를 따라 치기에는 느린 곡들에 대해 다른 관객들과 공동으로 흥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북한에서 관객들이 언제부터 공연 도중 이런 동작을 선보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한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중국 관객들의 문화가 북한으로 전파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03년 당시에는 남한 공연단과 참석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북한 관객들의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남한 관객들의 이러한 행동이 북한 관객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4. 소프트 파워의 막강한 위력과 한류

1)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하드파워(Hard Power)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의 이미지와 영향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의 영화배우들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발견하고, 영화 속에 비치는 미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동경하고 모방하기도 한다.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인을 친미주의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영화를 팔아서 돈을 벌고, 영화를 통해서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유리한 광고를 하고, 영화를 본 적대 진영의 군중들을 하나하나 무장해제시켜 나갔다. 20세기 발명품(영화가 19세기 말 발명되었지만 상품화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다.) 가운데 원자탄을 제외하고는 할리우드 영화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 콘텐츠는 단지 한 사회의 사회질서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까지 포함된 총체적 콘텐츠로 생산된다. 따라서 이를 향유하는 소비자는 그 속에 담긴 가치나 정체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Joeph Nye)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홍수원역,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9)라고 규정한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의 젊은이들이 금지된 미국 비디오나 위성TV를 집에서 몰래 보는 사례를 소개하며 소프트 파워의 매력은 강제력을 동반하는 하드 파워보다 훨씬 위력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무시한다. 미국 부시 정부의 매파 정치인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힘의 약세는 적의 도발을 부른다"라고 했고,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은 "사람들은 강한 자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소련의 정치가인 스탈린은 '교황 밑에 몇 개 사단이 있느냐'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2) 동독의 재즈열풍

소프트 파워는 통일전 동독에 불어 닥친 재즈열풍에서도 확인된다. 비록 분단이 되었지만 서독의 대중음악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동독에 일찍부터 소개되었으며, 전파를 통한 가상공간 속에서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동독의 젊은이들은 1950년대 말부터 거리나 공원에서 가방모양의 휴대용 라디오(Koffer radio)를 들고 함께 어울려 다니며 서독 방송의 재즈와 록 음악을 청취했다. 1960년대 초에는 비틀즈의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는 재즈음악, 몸을 비트는 춤, 청바지나 나팔바지, 비틀즈의 헤어스타일 등이 동독 젊은이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단속해 나갔다.

그러나 서방 음악에 대한 동독 젊은이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으며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에서는 아마추어 재즈그룹이 속속 탄생했다. 동독 젊은이들의 서방 음악에 대한 열광을 보다 못한 동독 문화부는 1965년 10월 11일 '타락적인 서구 음악을 금지한다.'라는 지령을 발표하였으며 라이프치히 49개의 재즈그룹 중 44개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국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경고가 오히려 재즈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산시켰다. 동독 젊은이들은 서방음악을 통해서 장벽으로 단절된 서독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했다. 서독상표가 붙은 초콜릿 하나만 가져도 젊은이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동독인들한테 서독은 바로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3) 한류문화의 확산 가능성

남한의 대중 공연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 대중문화의 위력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화는 작은 데서 출발한다. 일단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 소프트 파워의 힘이자 대중문화의 위력이다.

북한에서 남한의 대중문화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파될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측을 한 연구가 있다. 전희락·박종렬(북한에서의 한류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평화학연구』제14권 4호)은 옥수수 잡종 씨앗의 확산 패턴을 연구한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의 농촌사회학자인 Ryan과 Gross의 사례를 인용하여, 북한에서 한류문화의 확산은 초기 단계에는 서서히 확산되다가 '혁신'에 대한 주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산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단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유학생이나 당 간부들을 통해서 한류 문화가 수용된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확산 속도가 무척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4) 모란봉악단과 EXO의 합동공연

예술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다양성과 자유분방함의 결여, 획일적인 공연 방식, 특정한 인물을 칭송하고 이념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강박성 등은 모란봉 악단의 태생적인 한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세대적 발상과 수구적 사고가 충돌하고, 넓고 완고한 틀이 새로운 흐름에 순화되어 가고 있다. 튜브톱과 군복, 재즈와 거수경례, 미키마우스와 탱크 등 서로 대비되고 통일성 없는 이미지의 혼재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이러한 갈등의 공간이자 변화의 시발점임을 보여준다. 생물

학적 연령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모란봉악단, 분명한 것은 모란봉악단도 한류의 막강한 파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점점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모란봉악단과 그룹EXO의 합동공연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